

## 한국해양진흥공사, 첫 외화채권 발행 성공

- 국적선사의 선박 도입, 물류시설 확보 등 국적선사 지원 확대에 활용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공사')는 4월 24일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3억 달러 규모의 첫 미 달러화 표시 외화채권을 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외화채권 발행을 통해 선박도입 시 자금조달 후 장기간에 걸쳐 운임 등으로 상환하는 해운업의 특성상 사용통화가 달라서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에 따른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특히 대형선사보다도 상대적으로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선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와 공사는 그간 업계 수요를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외화채권 발행을 추진해 왔다. 공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유럽·아시아의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2차례(2022. 12., 2023. 4.)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했다. 특히, 두 번째 설명회에는 해수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와 공사의 수익성, 재무건전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공사는 이번에 확보한 외화자금으로 국적선사의 선박 도입, 물류시설 확보 등 선사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해수부와 공사는 앞으로도 국적선사의 외화 투자 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외화채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해운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해운산업의 불황이 예상되어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 확대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외화채권 발행과 같이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해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 장	허만욱 (044-200-5710)
		담당자	사무관	박찬수 (044-200-5716)
담당 부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책임자	본부장	이진균 (051-795-1402)
		담당자	팀 장	김정균 (051-795-1571)

